

부록 항공교통이용자 이슈 정보

제1절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리모델링 완료

김포공항의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무려 10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0월 17일 문을 열었습니다.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리모델링을 통해 여객수속 시설 확충 및 대합실 확장, 공항 내 특화공간 조성, 화재예방시스템 구축, 각종 스마트 시스템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

김포공항은 지난 2009년부터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성능 저하, 저비용항공사의 성장, 단체여행객의 증가 등 내·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

김포공항의 리모델링은 공항 운영을 정상 운영하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, 그만큼 고난도의 공사였습니다. 안전을 위해 공사구간을 수백개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했으며, 소음·진동·분진 등을 유발하는 작업은 야간에 시행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.

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여객수속시설확충

- ❖ 먼저, 공항의 핵심시설인 수하물처리시설 및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. 과거 수하물 처리시간은 15분 내외였는데, 이번 시설확충을 통해 5분 이내로 감소되었습니다. 보안검색대도 10대에서 14대로 증설하여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. 그 외에도 3개의 탑승교가 추가되었습니다.



〈그림 부록 1〉 리모델링 후 원활한 보안검색대



〈그림 부록 2〉 일반대합실 리모델링

2. 대합실 확장

- ❖ 단체여행객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대합실을 대폭 확장하였고, 탑승교마다 도착 전용 승강기를 신설해 출발여행객과 도착여행객의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. 여행객들이 김포공항을 한층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터미널 양측 윙 지역에는 총 533m 길이의 무빙워크를 설치해 걷는 거리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.



<그림 부록 3> 동서측wing 격리대합실 리모델링

3. 공항 내 특화공간 조성

- ❖ 1층 대합실 동편의 유휴공간에 자연광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프리움을 조성했습니다. 4층 지역에는 대형 테마식당가를 조성해 공항 내에서 유명 맛집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옥상 전망대를 이용하면, 항공기 이착륙을 볼 수 있습니다. 비록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지만,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항공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포공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터미널 옥상에 전망대를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.



<그림 부록 4> 옥상 전망대

- ❖ 교통약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화장실은 8개에서 37개로, 임산부휴게실은 2개에서 7개로 증가하였으며, 터미널 내 모든 화장실의 인테리어도 전면 개선되었습니다.



<그림 부록 5> 화장실 리모델링

4. 화재예방시스템 구축

- ❖ 공항 내 전 구간에 스크린클러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. 또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설치, 지중의 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.



〈그림 부록 6〉 태양광 시스템

5. 각종 스마트시스템 설치

- ❖ 보안검색장비가 첨단화되었으며,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항공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김포공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,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리성이 증대되기를 기원합니다.